

한국어 의미학 25, 187-222 (2008. 4. 30.)

## 속담 속 색채 표현의 의미 형성 — 유채색 계열을 중심으로\* —

장 경 현  
(서울대학교)

### <Abstract>

**Jang, Gyeong-hyeon. 2008. The Formation of Color Expressions Meanings in Proverbs: On the Chromatic Colors Groups. *Korean Semantics*, 25.** This study has purpose to analyze the meanings of color expressions in the context of proverbs. The meanings of proverbs are not only the composition of the meanings of the component words, but also the independent meanings of the specific texts. So I used the theory of dénomination to analyze the meanings of color words in the context of proverbs. There are three grades in the semantic process of proverbs; 1) the word-meanings 2) collocational meanings 3) dénominational meanings. We must give attention to the words that co-occur with the color words and regard the meanings of the color words as the compositional meanings of the color words and the collocated(or co-occurred) words.

I classified the proverbs by their color expressions and in this paper I tried to analyze and explain especially the chromatic color words. The work analyzing the color expressions in proverbs must include the evaluating meanings of the proverbs. The meanings of the color words are combined to the meanings of the collocated(or co-occurred) words and express the evaluation. The collocated(or co-occurred) words are mostly related with human life and the nature.

---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 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 조성사업비)으로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79-AS0100).

핵심어: 색채 표현(color expression), 속담(proverb), 유채색(chromatic color), 은유(metaphor), 환유(metonymy), 기억색(memory color), 지칭(dénomination), 가치 평가(evaluation), 연어(collocation), 의미 확장(meaning extention)

## 1. 서론

언어는 인간이 지각하고 공유하는 보편 지식이 체계화하고 기호화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에서 나타나는 색채 표현은 실제의 물리적인 색보다는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색을 표상한다고 볼 수 있다. 색채어 ‘붉다’가 현실의 색을 나타낼 뿐 아니라 ‘뜨겁다, 위험하다, 공산주의자, 피, 열정’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따라서 언어학의 의미론적 관점에서 색채어 또는 색채 표현을 연구하려면 1차 의미인 물리적 색이 아니라 2차 의미인 내포 의미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런 목적에 있어 속담은 오랜 기간 축적된 언중의 경험적 인식을 담고 있고 구성 어휘들이 외연적인 1차 의미보다는 내포적인 2차 의미가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주요 관찰 대상이 된다. 속담에서 나타나는 색채 표현은 사회 맥락적 의미를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기존에도 속담에 나타나는 색채어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는 속담 속 색채어를 독립된 어휘와 같이 취급하여 단일어의 어휘 의미로 파악하였다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그런 시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속담 전체를 구성하는 지칭적 의미의 한 요소로서 색채 표현을 파악하여 그 의미의 전이 과정을 밝히는 데 있다. 따라서 색채 표현을 ‘색채어’로서 어휘 의미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어휘 연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속담 전체의 의미와 결부되는가를 보이면서, 속담을 논할 때 독립된 어휘 의미를 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보이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속담의 의미 형성 단계에 대한 논의도 제시할 것이다.

속담 속 색채 표현 가운데 무채색, 즉 [흑/백] 계열에 대해서는 장경현(2007)에서 논한 바 있다. 본고는 그 뒤를 이어 유채색 계열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은유·환유적 의미 확장에 대해 좀더 발전적인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sup>1)</sup>).

## 2. 앞선 연구

속담 속 색채 표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많지 않으나 꾸준히 있어 왔다. 지인영(1999)은 한국 속담과 영어 속담에서 볼 수 있는 생활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증명하였고 조영수(2002·2003)는 독일·영미·한국 속담·관용어 등에서 나타나는 색채어의 상징 의미를 비교한 연구이다. 권영성(2003)은 색채어의 상징 의미를 고찰하면서 관용 표현에 나타나는 색채어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박선훈·권영걸(2005)은 색채학의 맥락에서 우리나라 속담에 나타나는 서민의 색채 의식을 논한 연구이다. 이들 연구는 색채어 자체가 고유한 상징 의미를 표상하는 것으로 결론을 제시하였다.

단일어, 복합어, 관용구, 속담에서의 색채어 의미는 각기 그 영역이 조금씩 다르다. 어휘 층위에서는 독립된 의미가 있고 연상 작용에 의해 의미가 확장된다. 그러나 관용구 등 언어 구성으로 가면 색채어와 결합하는 체언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속담에서는 속담 전체의 의미에 따라 현실 세계의 가치 판단이 선택되는 일이 많다. 이런 사실은 기존 연구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되면서도 언어 구성의 의미를 단일 어휘의 의미로서 제시함으로써 언어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여 장경현(2007)은 속담에 나타나는 [흑/백] 계열 색채어의 의미를, 언어 구성을 이루는 체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흑/백] 계열은 상징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색채어 고유의 2차 의미가 속담 속에 반영된 것이 많지만 사전적 의미가 속담 속 색채 표현의 의미와 일치하지는 않았다.

속담 자체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1) [흑/백] 계열을 제외했으므로 양적인 측면에서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색채 표현이 나타나는 속담의 상당수가 [흑/백] 계열이고 유채색은 소수의 속담이 산개해 있으므로 완전한 논의를 알기 위해서는 장경현(2007)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프랑스 어학 쪽에서 속담의 본질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홍성진(2000), 강성영(2001), 황경자·백경선(2002) 등에서는 Kleiber 등의 이론을 기반으로 속담의 정체성에 대해 흥미로운 논의를 전개하였다. 또한 주경희(2006)는 속담에서의 비유성을 의미론 층위와 담화 층위로 나누어 논의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기존의 속담 관련 연구에서 의미 층위와 형식 층위가 뚜렷한 구분 없이 비유성이 논의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관용어와 속담의 차이를 비유성의 유무에서 찾았다.

### 3. 속담 구성의 의미 형성 과정

속담 구성의 의미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 형성된다. 1) 구성 어휘의 기본 의미의 총합, 2) 연어 구성이 만드는 의미, 3) 연어 의미가 전체 맥락을 바탕으로 하여 나타내는 최종적인 지칭적 의미<sup>2)</sup>이다. 이는 ‘어휘>구>텍스트’의 순서로 구성 요소가 결합하여 전체 텍스트의 의미가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

#### (1) 개 팔아 두 냥 반<sup>3)</sup>

이 속담을 구성하는 어휘들을 각기 살펴보다라도 속담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축자적 의미만 나타날 뿐이다. 따라서 위의 세 단계를 거치면서 이들 단계가 어떻게 연계되어 마지막 지칭적 의미를 발현하는지를 관찰해

2) Kleiber(1984)는 속담에 대해 지칭어(dénomination)라는 개념을 부여하였다. 이때의 지칭이란 개념은 기호와 대상 사이의 지시 관계가 미리 정해져 그 언어 표현 전체가 약호화된 기호(code)로서 기능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속담이 사전에 단어와 거의 동등한 자격으로 등재된다는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다(홍성진, 2000). 주경희(2006)에서는 세 번째 단계를 담화 층위의 의미라 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어휘 의미의 범주 안에서 논의를 전개하므로 속담 텍스트 전체를 어휘의 개념과 유사하게 보는 지칭 개념을 택했다. 기존 논문에서는 ‘지칭어’라는 역어를 사용했으나 하나의 텍스트 단위인 속담을 지시하기 위해 ‘어’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지칭’이라고 하기로 했다.

3) 개를 팔아 두 냥 반을 받았으니 양반(兩班)은 한 냥 반으로 개 한 마리 값만도 못하다는 뜻으로, 못난 양반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야 한다<sup>4)</sup>. 속담의 의미는 최종 단계의 지칭적 의미이지 어휘 의미나 언어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 3.1 구성 어휘의 기본 의미

기존의 색채어 관련 연구에서는 각각의 색채어에 인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많았다. 즉 ‘빨강’이면 [정열, 불, 위험, 관능...] 등의 연상되는 관념을 제시하여 색채어 자체에 그러한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런 설명 방식은 색채어를 하나의 기호로 파악하여 색채 심리, 색채 마케팅 등의 실용적인 연구에 활용하는 데에 있어 이점을 가진다.

그러나 언어 연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태도는 관용구와 속담에서 나타나는 색채 표현이 일관되지 않고 다소 무질서하게 나타나는 현실을 설명하는 데 다소 부족하다. 실제로 그러한 연상 의미는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색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용구나 속담의 색채 표현에서 볼 수 있는 언어적 현상과 구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검다] 계열은 [어둠, 죽음, 엄숙, 惡, 더러움]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속담에서는 공기하는 어휘에 따라 아무런 연상 의미가 없는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오히려 상급의 품질을 나타내기도 한다<sup>5)</sup>. 이것은 공기하는 어휘가 지시하는 특정 상황에서 색채 표현이 부여받은 가치 의미이므로 ‘검다’의 고유한 의미로 볼 수 없다.

관용구(idiom)는 어느 정도 이러한 인지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검은 거짓말, 흰 거짓말’과 같이 색채어의 속성이 관용구 전체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속담의 경우에는 색채어 자체의 의미만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관용구의 색채어 의미는 일정한 범주를 형성하고 예측이 가능하나 속담은 관용구에 비해 의미 범주가 불구착하고 개별 어휘보다는 전체의 지칭적 의미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색채어 어휘만의 의미를 설정하기는

4) 속담에는 길흉담이라든지 단순한 자연의 이치를 서술하는 것들이 있다. 이들은 ‘흰 나비를 먼저 보면 상재가 된다’와 같이 축자적 의미를 나타낸다. 그렇지만 이런 길흉담의 배경이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어렵기 때문에 해석이 요구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5) ‘같은 값이면 껌정소 잡아먹는다’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

어렵다. 다만 축자적인 의미 그대로 해석되는 속담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휘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2) ㄱ. 보리누름에 선늬은이 얼어 죽는다<sup>6)</sup>

ㄴ. 푸른 하늘에 별 박히듯<sup>7)</sup>

(2ㄱ)의 ‘보리누름’은 ‘보리가 누렇게 익을 무렵’이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합성어인데 ‘누르다’의 의미가 살아 있다. 속담 속에서 더 이상의 의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2ㄴ) 역시 ‘푸르다’의 기본 의미 외에 다른 의미는 나타나지 않는다.

속담 구성 색채 표현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휘 단계에서 색채어의 상징 의미를 해석하기보다는, 색채 표현의 기본 의미를 파악하고 연어 구성에서 상징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8)</sup>.

### 3.2 연어<sup>9)</sup>의 의미

색채어가 단독으로 나타내는 의미보다는 다른 어휘와 연어 구성을 이루면서 나타내는 의미가 더 다양하고 생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연어를 이루는 어휘, 특히 체언에 따라 수식하는 색채어의 의미가 한정되기 때문에 색채 표현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언의 의미 특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3) ㄱ. 남의 꽃은 붉게 보인다<sup>10)</sup>

ㄴ. 겨울이 다 되어야 솔이 푸른 줄 안다<sup>11)</sup>

6) 보리가 누렇게 익을 무렵에는 따뜻해야 할 것이나 바람이 불고 출기까지 하므로 더워야 할 계절에 도리어 춥게 느껴지는 때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 [북]어떤 물건이 빠르게 박히거나 작 깔린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8) 이것은 ‘조자룡이 현 창 쓰듯’이나 ‘소대성이 모양으로 잠만 자나’와 같이 그 어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9) 여기서는 합성어, 공기(共起) 관계, 연어 구성을 구분하지 않고 ‘연어’에 포함하여 논한다.

10) [북]남의 손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이 잡은 일감이 더 험어 보인다’의 북한 속담. #남의 손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이 잡은 일감이 더 험어 보인다 물건은 남의 것이 제 것보다 더 좋아 보이고 일은 남의 일이 제 일보다 더 쉬워 보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ㄷ. 비렁뱅이한테도 붉은 띠 빌린다<sup>12)</sup>

(37-ㄷ)은 각각 ‘꽃’, ‘술’, ‘띠’와 공기하여 긍정적인 가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긍정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체언들과 결합해야 한다. 같은 식물의 긍정적인 가치이지만 ‘꽃:붉다’, ‘나무·풀:푸르다’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연에서의 경험적 지식에 결과한 것이다. 이때 ‘꽃’에 대해 ‘노랑다’ 등이 나타나지 않고 반드시 ‘붉다’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붉다’가 꽃에 대한 기억색(memory color)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회색 종이를 나뭇잎으로 오려 놓고 어두운 곳에서 볼 때 회색이 아니라 녹색으로 보이는 현상을 기억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인간이 인지하는 감각은 직접적인 감각 지각뿐 아니라 기억에 저장된 감각의 기억이 활성화되어 나타날 때가 많다. 인간은 보통 사과와 빨강을 식물보다 더 빨간 것으로 기억하는 등, 뚜렷한 색의 특징을 더 강조하여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기억색(memory color)에 비추어 사물 색채의 좋고 나쁨을 판단한다(박옥련, 1998:95)<sup>13)</sup>.

그러나 이러한 언어 의미는 최종 의미를 도출하기 위한 전 단계일 뿐이다. 단일 어휘 의미와 연어 의미는 최종 의미의 기표의 일부로 강등되어 존재한다(황경자·백경선, 2002).

(4) 아내 행실은 다홍치마 적부터 그루를 앓힌다<sup>14)</sup>

‘다홍치마’의 사전 의미는 ‘질고 산뜻한 붉은빛 치마’이다. 이것만 보면 [다

11) 푸른 것이 다 없어진 한겨울에야 솔이 푸른 줄 안다는 뜻으로, 위급하거나 어려운 고비를 당하여 보아야 비로소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2)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도 나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다.

13) 색은 미각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한다. 단맛은 적색·주황색·붉은 황색, 신맛은 녹색 기미의 황색·황색 기미의 녹색, 쓴맛은 진한 청색·갈색, 짠맛은 연한 녹색과 회색·연한 청색과 회색 등의 색에 의해 촉진된다(박옥련, 1998:101). 대체로 난색 계열이 단맛, 흰색 계열이 쓴맛과 관계하는데, 특히 식품의 경우 색과 품질의 관계가 이러한 미각과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14) 아내를 휘어잡으려면 다홍치마를 입는 새색시 적부터 잘 가르쳐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홍+치마]의 독자적인 의미 결합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의복-착용자]의 환유적 의미 전이에 의해 ‘짧은 시절’의 뜻이 된다. 이 과정에서 예전에 짧은 여성이 다홍치마를 입었다는 지식이 개입한다. 그리고 이 의미는 속담 전체의 담화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기능한다. 현재는 ‘짧은 여성=다홍치마’라는 지식은 유효하지 않으나 속담 전체의 구성 요소로서 그 의미가 기능을 한다. 즉, 연어 의미만으로는 가치 평가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어 구성은 색채 표현과 현실 사물의 관계를 구성하여 제시할 뿐이다<sup>15)</sup>.

### 3.3 지칭적 의미

속담은 구나 문장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속담의 최종 의미는 이 구와 문장에서 발견되는 것이지 구성 어휘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속담 텍스트 자체가 하나의 기표로서 기능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지칭의 개념이 나온 것이다. 이때 은유·환유의 비유적인 의미 확장 또는 전이가 일어난다. 은유는 새로운 언어 관계를 창조하는 반면 환유는 지시체들 간의 연결 관계를 활용한다(황경자·백경선, 2002:382). 속담 속 색채 표현은 대체로 환유적 의미 전이를 보여준다. 언중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지식이 속담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연결 관계를 활용하는 환유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속담이나 관용구 등에 쓰이는 색채 표현은 주로 형용사로 나타난다. 명사로 나타나는 경우에도 연어 구성을 위해 관형어의 기능을 할 때가 많다(57). 은유·환유가 구현되는 단어는 대개 구체명사이고 구체명사가 의미 확장이나 연상 작용에 의해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 은유·환유의 작용 과정이다. 색채 표현의 경우 지시 대상 자체가 고정된 실체가 없는 감각이다. 그리고 색채 표현이 은유·환유적 의미를 보이는 경우, 그 의미는 연어 구성을 가

15) 본고의 심사평에 가치 평가가 색채 표현과 공기하는 사물의 원형적 색채와의 일치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속담 전체 의미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었다. 원형적 색채와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맞지만, 가치 평가는 속담 전체 구성의 의미 형성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판정되는 것이지 연어 구성 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는 체언에 의해 결정되며 색채어 자체의 고유 의미는 추상적인 관념으로 대체된다.

- (5) ㄱ. 눈 어둡다 하더니 다홍 고추만 잘 판다<sup>16)</sup>
  - ㄴ. 빨간 상놈 푸른 양반<sup>17)</sup>
  - ㄷ. 초록은 동색<sup>18)</sup>

(5ㄱ)은 전체 맥락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단순히 ‘다홍색 고추’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그러나 전체 맥락에서는 ‘상급의 고추’라는 의미가 부각된다. 만약 ‘다홍 고추’라는 표현이 일상적으로 연어 구성으로 쓰인다면 연어 의미에서 이미 그러한 의미가 나타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속담의 맥락에서만 해석이 가능하다. (5ㄴ)은 자료에 따라 ‘빨간 상놈’, ‘푸른 양반’으로 분리되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의미의 대립이 현저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기대어 쓰이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이때의 ‘빨간’과 ‘푸른’은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 속담 전체의 의미는 분명하나 연어 구성의 의미가 불분명한 예이다. 이것으로 보아도 연어 의미가 속담 구성 요소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ㄷ)은 원래 ‘草’와 ‘綠’으로 나누어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이런 개별 의미는 모르더라도 속담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여 파악한다.

색채 표현의 경우 색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색채어가 단순히 물리적인 색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흑]의 경우 ‘악하다, 위선적이다, 더럽다, 질이 좋다’ 등의 여러 가지 가치 평가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은 어휘만 단독으로 보아서는 판별할 수 없는 내포 의미이다. 그리고 ‘검정 소’가 우수한 품종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 
- 16) ①눈이 어두워 잘 못 본다고 하면서도 붉게 잘 익은 고추만 골라 가며 잘도 판다는 뜻으로, 마음이 음흉하고 잇속에 밝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제 일만 알고 남의 일은 핑계만 대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7) 모든 것을 드러내 놓고 마구 사는 상놈과 서슬이 푸르게 점잔을 빼고 있는 양반을 대조하여 이르는 말.
  - 18) ①풀색과 녹색은 같은 색이라는 뜻으로, 처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한패가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명칭은 다르나 따져 보면 한가지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어휘 의미의 조합만으로는 알 수가 없을뿐더러 일상적인 [흑]의 연상 의미로도 파악할 수 없다. 속담 전체의 의미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이 경우에는 [흑] 계열의 다른 색채 표현들이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데 반해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어 다른 경우들과 차이가 있다. 또, 어떤 속담들은 텍스트 자체만으로 의미를 알 수가 없고 사전 등의 뜻풀이를 통해 해독할 수 있는 것도 있다.<sup>19)</sup>

이러한 속담의 의미 형성 과정은 속담 의미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속담에서 나타나는 색채 표현을 중심으로 이 과정을 살펴보겠다.

#### 4. 색채별 속담 의미 분석

긍정/부정/중립의 가치 평가는 속담 속 색채 표현 의미에 있어 중요한 분류 기준이 된다.<sup>20)</sup> 레이코프(Lakoff, 1987:77~90)는 환유 모형(metonymic models)으로서 ‘사회적 스테레오타입(social stereotypes)’과 ‘이상형(ideals)’을 설정했다. ‘사회적 스테레오타입’은 ‘정치꾼은 이기적이고 부정직하다’와 같이 사회적인 통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형’은 ‘이상적 남편은 훌륭한 부양자이며 성실하고 강하고 존경받고 매력적이다’와 같이 그 대상의 가능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임지룡, 1997). 이러한 환유 모형은 속담 색채 표현에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속담에서 색채 표현은 가치 평가와 결부되는 일이 많다. 주경희(2006:430)에서는 속담의 관용 의미가 항상 사람에 대한 언급이라고 했는데, 사람에 대한 풍자적·비유적 표현은 대개 사람에 대한 가치 평가와 연결된다.

장경현(2007)에서는 [흑/백]으로 색채명을 표시했으나 본고에서는 좀더

19) Anscombe는 한 시대 또는 사회에 통용되는 이데올로기의 저장소에서 추출해 낸 공인된 관념이 외재적 토포이(topoi)를 이루며, 외재적 토포이는 제한된 공동체 안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Anscombe, J., 1995:126, 홍성진, 2000:39~40에서 재인용). 따라서 속담의 의미를 표상하는 어휘들은 현재 즉각적인 기억의 활성화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

20) 손세모들(2000)도 ‘시빨징다, 푸르뎡뎡하다, 누르스름하다’ 등 색채어의 음운이나 형태소 첨가에 따른 평가 태도를 중요한 분류 기준으로 삼았다. 국어의 색채어가 발달한 것도 정서를 표현하는 형태소가 자유롭게 첨가되는 색채어의 특징 때문이다.

포괄적인 명칭을 사용하여 유형을 분류했으므로 ‘[붉다/파랗다/노랗다]’와 같이 색채명을 표시한다. 체언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한자어 색채명은 [흑/백]과는 달리 여러 가지로 분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붉은색 계열은 ‘赤, 紅, 丹, 紫, 朱’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같은 붉은색 계열이면서도 미묘하게 구별되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런 세부 범주를 상세히 구별하려면 실제 자연의 사물색을 정밀하게 색채 표현과 대응시켜 관찰해야 한다. 이런 작업은 언어적 접근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으며 특히 색채어가 추상적으로 쓰이는 속담에서는 얻을 수 있는 바도 적다. 그러므로 오히려 몽땅그려서 큰 범주로 묶어 다루는 편이 낫다. 그리고 속담에서는 색채 표현이 대부분 체언보다는 용언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에서 색채 계열을 용언형으로 지칭하는 것이 의미 기술에는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다.

#### 4.1 [붉다] 계열 색채 표현 출현 속담

속담에 나타나는 붉은색은 오방정색의 적(赤)이 아니라 오방간색의 단(丹)이나 홍(紅)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sup>21)</sup>. 그리고 속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색이 붉은색이다(박선혜·권영걸, 2005:8). 자연에서 붉은색은 매우 채도가 높은 색이므로 다른 유채색 계열과 같이 특수한 사물에서 나타난다. 속담에서는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유형의 대상이 주로 [붉다] 계열어와 연어 구성을 이룬다. 특히 비유적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신체 관련어를 사용하는 일이 많으므로 ‘피, 피부’와 관련된 유형이 많이 보인다.<sup>22)</sup> 그 외에는 꽃, 열매 등의 식물, 염료 관련어가 있다.

21) 일본의 기본 색채어에는 赤이 들어간다(권영성, 2003). 우리나라에서는 赤이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紅이 긍정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22) 외국의 속담이나 관용 표현에서도 이런 양상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의 ‘red eye’는 위스키 등과 토마토 주스를 섞은 술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해장술이므로 과음하여 벌게진 눈과 주재료인 토마토의 색을 빗대어 붉은 이름이다.

4.1.1 긍정적 가치

1) 꽃·열매

자연에서 붉은색의 원형이 되는 것은 주로 꽃과 열매이다. 붉은색이 선명할수록 꽃과 열매는 높은 평가를 받는다.

- (6) ㄱ. 십 년 세도(勢道) 없고 열흘 붉은 꽃 없다<sup>23)</sup>
- ㄴ. 꽃이라도 십일홍(十日紅)이 되면 오던 봉접도 아니 온다<sup>24)</sup>
- ㄷ. 남의 꽃은 붉게 보인다
- ㄹ. 사과가 되지 말고 도마도가 되라<sup>25)</sup>
- ㅁ. 눈 어둡다 하더니 다홍 고추만 잘 따다

이 경우 의미 형성 단계는 다음과 같다.

어휘 의미	연어 의미	전체 지칭 의미
꽃, 붉다	‘붉다’> [꽃/열매의 가장 좋은 상태]	[부귀영화], [사물이나 사람의 최전성기]

(ㄹ)은 북한 속담으로, ‘도마도’로 보아 상당히 최근에 생긴 속담으로 생각된다. 색채 표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붉은빛을 띤 과일들로 그 색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때의 ‘사과’와 ‘도마도(토마토)’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은유 의미와 속담 텍스트의 지칭적 의미이다.

사과 : 도마도=①겉이 붉고 속이 흰 것 : 겉과 속이 모두 붉은 것(은유)  
 =②겉과 속이 다른 사람:겉과 속이 같은 사람(지칭)

23) 부귀영화가 오래 계속되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4) 사람이 세도가 좋을 때는 늘 찾아오다가 그 처지가 보잘것없게 되면 찾아오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ㄴ=꽃이 시들면 오던 나비도 안 온다 나무라도 고목이 되면 오던 새도 아니 온다.  
 25) [북]사과처럼 겉만 붉고 속은 흰 사람이 되지 말고 토마토처럼 겉과 속이 같은 건실한 사람이 되라는 말.

엄밀히 말하자면 이 전 단계에 ‘사과/토마토’의 외연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속담에서는 ‘사과/토마토’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상징물일 뿐이므로 은유에 의해 의미 확장이 이루어진 단계부터 적용된다. 이때 ‘사과/토마토’에 내포된 [붉다]는 긍정적 가치를 표상한다. 실제로 텍스트 내의 연어 구성만 보아서는 가치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결과 속이 모두 붉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상적인 인간상을 의미하는 긍정적 가치라고 보아야 한다.

## 2) 식품

### (7) 붉고 쓴 장<sup>26)</sup>

식품의 예는 하나밖에 찾지 못했다. ‘붉다’가 품질 좋은 간장을 표상하는데, 이것은 순전한 경험적 지식에 의한 것이다. 전체의 지칭 의미는 부정적인 것이나 ‘붉다:쓰다=긍정:부정’의 의미 대립을 보이므로 긍정으로 분류하였다. 이때는 연어 의미라고 볼 수 있으나 ‘붉은 장’만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추출하기는 어려우므로 지칭 의미에 의해 도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의류

### (8) ㄱ.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검정 송아지/파부 집 머슴살이/처녀]<sup>27)</sup>

ㄴ. 아내 행실은 다홍치마 적부터 그루를 앓힌다/색시 그루는 다홍치마 적에 앓혀야 한다<sup>28)</sup>

26) 빛이 좋아서 맛있을 듯한 간장이 쓰다는 뜻으로,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좋으나 실속은 흉악하여 안팎이 서로 다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7) 값이 같거나 같은 노력을 한다면 품질이 좋은 것을 택한다는 말. ㄴ같은 값이면 껌집소 잡아먹는다.

28) ①아내나 새 며느리를 길들이고 법도를 세우려면 다홍치마를 입은 새색시 때부터 똑바로 가르쳐야 한다는 말. ②못된 버릇을 고치고 좋은 버릇을 들이려면 못된 버릇을 처음부터 다잡아서 길들여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ㄷ. 비렁뱅이한테도 붉은 띠 빌린다<sup>29)</sup>

어휘 의미	언어 의미	전체 지칭 의미
다홍, 치마	‘다홍’> [치마가 예쁘거나 품질이 좋음]	[좋은 품질], [새색시]

언어 구성인 ‘다홍치마’는 긍정적인 가치를 표상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예쁜 치마 또는 고급 치마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유에 의해 ‘다홍치마를 입은 여자=젊은 처녀/새색시’를 뜻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동의 속담에서 ‘다홍치마’ 자리에 ‘처녀’가 오는 것으로 보아 후자로 볼 가능성이 높다. 예전에 여성은 젊었을 때는 자주나 홍치마를 입고 나이가 들어서는 남치마를 입었다고 한다(나지영, 2002:12). (8ㄷ)의 ‘붉은 띠’는 언어 구성만으로는 단순히 ‘붉은색의 띠’로밖에 해석할 수 없으나 속담의 지칭적 의미로는 역시 좋은 품질을 뜻한다.

4.1.2 부정적 가치

- 피·피부

(9) ㄱ. 공것이라면 눈도 벌겍 코도 벌겍<sup>30)</sup>

ㄴ. 잔나비 궁둥짝[상관] 같다<sup>31)</sup>

ㄷ. 돼지도 낮을 붉히겠다<sup>32)</sup>

(10) 빨간 상늬 푸른 양반

어휘 의미	언어 의미	전체 지칭 의미
얼굴, 붉다	‘붉다’> [홍분, 수치]	[점잖지 못한 원초적 감정 표현]

29)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도 나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다.

30) 공것이라면 눈이 시빨게지고 코까지 빨개진다는 뜻으로, 공것을 지나치게 탐내는 모양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31) [북]얼굴이 보기 흉하게 울긋불긋한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2) 매우 뻔뻔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말.

부정적 가치를 나타내는 속담은 피·살 관련 부류만 보인다. 이때는 공기하는 다른 어휘도 부정적 가치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9)는 원초적인 얼굴빛이나 감정 표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9ㄴ)은 의미 작용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색채 표현이 직접 노출되지 않고 ‘잔나비 궁둥짝’으로 환유에 의해 표현되어 전체가 지칭 의미로서 역시 색채를 표현한다. (9ㄷ)은 ‘낮을 붉히다’라는 관용구가 있어 최종적인 지칭적 의미가 부정적인 가치를 띤다.

(10)은 ‘빨강다’가 표상하는 의미가 정확하지 않다. ‘빨간 상놈’에 대해 김영철(2003:65)은 ‘더 말할 나위 없는 상놈’이라는 뜻으로 보았고 여타 논문에서도 이런 해석에는 별 차이가 없다.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지칭 의미는 그렇지만 그 전 단계에서 ‘빨간’은 ‘별거숭이, 별거벗다, 적나라하다’ 등과 같이 아무 것도 걸치지 않은 맨살을 ‘붉다’로 표현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별정계 드러난 맨살’과 같은 표현을 자주 쓴다는 사실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역시 [붉다] 계열의 ‘피·살갓’ 유형에 속한다. 그러면 사전의 뜻풀이와 같이 ‘모든 것을 드러내놓다’라는 의미가 타당성을 갖는다. ‘푸른 양반’ 역시 모호한데 이 경우에는 색채의 대립과 ‘양반:상놈’ 대립이 대칭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연어 구성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푸른 양반’에 대해서는 ‘푸르다’에서 다시 논하겠다.

#### 4.1.3 중립적 가치

긍정·부정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단순히 외면을 묘사하는 부류가 있다. 이 경우는 연어 의미나 지칭 의미의 단계가 없다. 어휘 의미 단계만 있을 뿐이다. 이것은 주로 원형 심상과 관계 있음을 알 수 있다.

(11) 돌을 들면 얼굴이 붉어진다<sup>33)</sup>/드는 돌에 낮 붉는다<sup>34)</sup>

(12) ㄱ. 정월 대보름 달빛이 희면 흰 벼를 심고, 붉으면 붉은 벼를 심어야 풍년 든다

33) [북]무거운 돌을 들면 힘을 쓰게 되어 얼굴이 붉어진다는 뜻으로, 무엇이든지 원인이 있어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4) 힘들여 무거운 돌을 들고 나아 낮이 붉어진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나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그 원인이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ㄴ. 붉으면 대추지, 달면 꿀이지, 뭉뚱면 벼룩이지<sup>35)</sup>

(13) 남의 흥패 메고 춤추기<sup>36)</sup>

(14) 아침 해가 붉으면 비가 온다

(11)은 혈액이 얼굴에 몰려 얼굴빛이 붉어지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어떤 가치 평가가 개입되어 있지 않다. (12)에서는 기억색으로서 각 곡식·열매의 대표 심상이 제시되어 있다. (13)은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있다. 특히 옛날 관직이나 공사(公事)와 관련하여 색채 표현이 굳어진 것들이 있는데, ‘청서(靑書)<sup>37)</sup>/백서(白書)<sup>38)</sup>/황서(黃書)<sup>39)</sup>’ 등의 예가 있다.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속담 의미로서 기능하기 이전에 이미 함성어로 굳어진 것이므로 여기서는 중립적 가치에 넣었다. (14)의 경우도 단순한 사실을 서술할 뿐 의미의 확장은 보이지 않는다.

#### 4.1.4 가치 판단과 [붉다]의 상관성

일반적으로 [붉다]는 여러 가지 정서적·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sup>40)</sup> 긍정·부정의 가치 평가가 부여되는 일이 많다. ‘새빨간 거짓말’과 같은 표현에서부터, 한국 현대사를 배경으로 ‘빨갱이’와 같이 ‘[붉은색]=공산주의자/과격

35) 세상이 다 아는 것은 말할 것이 못 된다는 뜻.

36) [북]남이 과거에 합격하여 탄 흥패를 메고 우쭐하여서 춤추는 노릇이라는 뜻으로, 남의 명예와 권세를 이용하여 행세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흥패(紅牌)[명] 『역사』 문과외의 회시(會試)에 급제한 사람에게 주던 증서. 붉은색 종이에 성적, 등급, 성명을 먹으로 적었다.

37) 영국 의회나 추밀원의 보고서. 표지가 청색으로 되어 있는 데서 유래하였다.

38) 정부가 정치, 외교, 경제 따위의 각 분야에 대하여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만든 보고서.

39) 외교 교섭의 경과를 발표하는 프랑스 외교부의 누런 종이로 된 문서.

40) 조영수(2003)에서는 관용 표현에 나타나는 [붉다]의 뜻을 ‘1) 많은, 대단히 2) 특별한, 좋은 3) 환락, 흥청거림 4) 나쁜 5) 현장에서, 즉석에서 6) 건강한, 살아있는 7) 무의미한, 공식적인 8) 야간 9) 여자 10) 공산주의, 사회주의 11) 완전히, 순수히 12) 책략 13) 색깔 자체’로 분류했는데 이것은 독일어, 영어 등의 관용 표현을 주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국어에 나타나는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는 ‘붉다’ 자체의 어휘 의미로 보기 어렵다.

과'의 등식이 성립한다든지 '(탐욕으로) 눈이 벌게지다'와 같은 표현 등이 있다. 또 비언어 기호에서 '붉은색=뜨거움, 금지, 위험' 등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러한 용법은 속담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다<sup>41)</sup>.

속담에서 [붉다] 계열은 부정적인 가치보다 긍정적인 가치를 표상하는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었다.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은 꽃, 열매, 음식, 의류 등 자연물이나 생활필수품과 공기한다. 부정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는 피·피부와 관련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붉다]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속담의 지칭 의미가 부정적인 것으로, 형식에 있어서도 '벌겅'과 같이 다른 색채 표현에서 보기 힘든 가치 판단이 반영된 변이형이 나타난다.

[붉다] 계열어의 어휘가 가지는 연상 의미와 비교해 보면 속담의 가치 의미가 이와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상 의미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속성은 대부분 사회 제도·문화 등 인위적인 소산이다. 그러나 속담에서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런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음식이나 의류도 자연적 속성과 매우 가까운 것이지 사회·문화적인 결과물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연상 의미는 부정적인 속성이 많이 나타나나 속담에서는 긍정적인 가치가 더 많이 나타나 일치점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상 의미가 색채의 몇 가지 제한된 문화적 연관성에 따라 결정된 반면 속담은 자연물과의 연관성이 더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속담의 부정적인 가치 표현도 인간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 4.2 [푸르다] 계열 색채 표현 출현 속담

### 4.2.1 긍정적 가치

[푸르다] 계열에서 긍정적인 평가 의미는 나무와 풀 같은 식물과 공기할 때 나타난다.

41) 비언어 기호에서 나타나는 색채 상징, 색채 연상 의미가 실제로 언어 생활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언어 속 색채 표현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1) 나무

- (15) ㄱ. 겨울이 다 되어야 솔이 푸른 줄 안다/눈 와야 솔이 푸른 줄 안다<sup>42)</sup>
- ㄴ. 솔잎이 새파라니까 오뉴월[여름철]만 여긴다<sup>43)</sup>

어휘 의미	언어 의미	전체 지칭 의미
솔, 푸르다	‘푸르다’ > [나무의 가장 좋은 상태]	[진정한 가치], [의지/생명력]

(15)는 모두 소나무와 공기한다. 언어 구성만으로는 특별한 의미가 도출되지 않고 전체의 지칭적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나타난다. 이러한 최종 의미를 도출하는 것은 ‘눈, 겨울, 오뉴월’ 등 계절을 표시하는 어휘들이다. 나무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폭이 가지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속담들의 지칭 의미는 반드시 ‘겨울’의 은유 의미에 의해 결정된다.

2) 젊음

- (16) 길은 늙어도 속은 새파랳다<sup>44)</sup>

이 경우는 공기하는 체언이 ‘속’이지만 실제로는 ‘새파랳게 젊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다른 것들과 달리 구체 명사가 아닌 추상 명사 ‘젊음’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역시 근본을 따져 보면 ‘나무·풀’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어휘만 보면 ‘새파랳다’는 ‘새파랳게 젊은 놈’이라든지 ‘새파랳게 질리다’에서처럼 부정적인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 여기서는 ‘늙다:새파랳다’의 대립이 보이므로 ‘젊다’를 대체한 ‘새파랳다’는 역시 ‘새파랳게 젊다’로부터 형식상의 인접성 때문에 일종의 환유적 전이 과정을 거쳐 나타난 것이다.

---

42) 어려운 상황이 되어야 그것을 이기는 것을 보고 사람의 진짜 됨됨이를 알 수 있게 된다는 말.

43) 추위가 닥쳐왔는데도 솔잎이 새파라니까 더운 여름철로만 여긴다는 뜻으로, 근심 걱정이 쌓여 있는데 그런 줄은 모르고 작은 일 하나 되어 가는 것만 좋아함을 이르는 말.

44) 비록 몸은 늙었어도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한창 젊었을 때와 같다는 말.

3) 의류

(17) 청보[푸른 보자기]에 개똥<sup>45)</sup>

어휘 의미	언어 의미	전체 지칭 의미
푸르다, 보자기	'푸르다' > [상급의 직물]	[고급품/화려함]

푸른 보자기가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관직에 있는 양반의 의복이 푸른색이었고 푸른색이 나쁜 것을 물리치는 기복신앙적 의미를 갖고 있었으므로 고급품의 가치를 가진다고 추측할 수 있다. 비슷한 의미의 속담으로 '비단보에 개똥'이 있는 것을 보아도 이 해석이 옳음을 알 수 있다. 전체의 지칭 의미는 부정적이거나 그 부정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대조적으로 [푸르다]를 선택하였다.

4.2.2 부정적 가치

1) 의류

(18) 빨간 상놈 푸른 양반

어휘 의미	언어 의미	전체 지칭 의미
푸르다, 양반	분명치 않음	[권력, 오만]

(18)에서는 [붉다]와 [파랗다]의 대립이 나타난다. 앞의 [붉다] 논의에서 '빨간 상놈'에 대해 논해 보았지만 '푸른 양반'은 해석이 다소 모호하다. '유생'을 달리 이르는 말로 '청금(靑衿)'이 있다. 이것은 <시경>의 '청청자금(靑靑子衿)'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표준국어대사전). '푸른 양반'이 이것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사전의 뜻풀이처럼 '서슬이 시퍼렇다'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도 있다.<sup>46)</sup> '청금'이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라 우리나라에서는 추

45) 걸모양은 그럴듯하게 번드르르하나 내용은 흉하거나 추잡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6) 구미레(1992)에서는 백색과 청색이 맑고 곧은 선비의 상징색으로, 선비의 상징으로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가 등장한다고 하였다.

상적인 상징이 되므로 속담이 여기서 파생되었다고 확인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sup>47)</sup>. 그보다는 오히려 조선 시대 조선들의 관복이 검푸른빛의 야청색이었다는 사실(나지영, 2002:12)에서 그 기원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속담은 장기간 구전되어 오며 원래 생성 배경이 잊혀지고 새로운 발화 배경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생성 배경이 반드시 현재 통용되는 속담의 의미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대립 구도도 고려해야 하므로, ‘빨간’과 ‘푸른’의 대립에서 나타나는 등위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빨간’의 의미가 더 명료하므로 ‘빨간’을 기준으로 유추해 보자. ‘빨간’은 [시각], [몸], [外面] 등의 의미 성분을 내포하고 있다. 심리적이거나 추상적인 성분보다는 구체적인 성분이 드러난다. 이렇게 본다면 ‘푸른’도 일차적으로는 시각적인 외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청금’이나 조복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sup>48)</sup>. 또한 ‘상놈’과 ‘양반’은 계급의 대립을 보여줄 뿐 아니라 두 계급에 부여되는 부정적 가치도 보여준다.

## 2) 새

### (19) 파랑새 보고 며느리 곡식 뒷박 기운다

어휘 의미	언어 의미	진체 지칭 의미
푸르다, 새	‘파랑새’>[불행]	[불행]

(19)는 박신혜·권영걸(2005:4)에서 제시한 속담으로, 남도 산간 지방에서 파랑새를 가뭇과 기근 등 불행의 상징으로 여기므로, 이 새를 보면 며느리가 양식을 아끼느라 담던 뒷박을 기울여 곡식을 덜어놓는다는 뜻이라 한다. 여

47) 박신혜·권영걸(2005:4)에서는 중국의 ‘청금’에서 영향 받아 성균관 유생의 옷을 ‘청금’으로 불렀던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푸른 양반’에서는 [+권세]의 의미 특성이 나타나는데 성균관 유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약한 듯하다.  
 48) 색은 계급과 신분을 상징하는 데 쓰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채색은 귀족 계급에서만 쓸 수 있었고 평민은 특별한 예식, 즉 혼례 등에서만 유채색의 옷을 입을 수 있었다. 또 관직의 등급에 따라 입는 관복의 색이 정해져 있었다. 조선 시대에는 1·2품과 3품정은 홍색, 3품종과 4·6품은 청색, 7·9품은 녹색, 법사는 흑색, 연원은 황색으로 구분하였다(박옥련, 1998:107).

기서는 합성어가 길흥담에서 나타나므로 언어 의미와 지칭 의미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길흥담은 다른 속담과 달리 특별한 지칭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 4.2.3. 중립적 가치

(20) ㄱ. 청기와 장수<sup>49)</sup>

ㄴ. 청산 속에 묻힌 옥도 갈아야 빛이 난다<sup>50)</sup>

ㄷ. 청산에 매 띄워 놓기다<sup>51)</sup>

ㄹ. 청산이 늙겠다<sup>52)</sup>

ㅁ. 청천에 구름 모이듯<sup>53)</sup>

ㅂ. 산젯밥에 청메뚜기 뛰어들 듯<sup>54)</sup>

(21) 상전벽해 되어도 비켜설 곳(이) 있다<sup>55)</sup>/상전이 벽해가 되어도 헤여 날 길 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 있다<sup>56)</sup>

49) 비법이나 기술 따위를 자기만 알고 남에게는 알려 주지 아니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청-기와(靑--)[명]푸른 빛깔의 매우 단단한 기와.

50) [북]‘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의 북한 속담.

51) ①청산에 매를 풀어 놓으면 도로 찾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청산에 매를 풀어 놓고 무엇이든 걸려들기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허황한 일을 하고 요행만 기다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2) [북]하는 일이 더디고 굹뚝 사람이거나 하는 일 없이 놀고 지내는 건달의 행동을 핀잔하는 말.

53) 푸른 하늘에 구름이 모여들 듯이 여기저기서 한곳으로 많이 모여드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4) =산신 제물에 메뚜기 뛰어들듯. #산신 제물에 메뚜기 뛰어들듯: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메뚜기가 뛰어들었다는 뜻으로, 자기에게는 당치도 않은 일에 참여함을 비꼬는 말.

55) 뽕나무 말이 푸른 바다가 되더라도 피할 길이 있다는 뜻으로, 아무리 큰 재해 속에서도 살아날 가망은 있음을 이르는 말.

56) [북]‘상전벽해 되어도 비켜설 곳(이) 있다’의 북한 속담.

- (22) ㄱ. 물 퍼런 것도 잘 보면 여러 가지라<sup>57)</sup>  
 ㄴ. 푸른 소에 돌 던지듯<sup>58)</sup>  
 ㄷ. 푸른 하늘에 별 박히듯

(20-22)의 속담들은 별다른 확장 의미나 가치를 갖지 않는다. (19)는 한자어 ‘靑’으로 만들어진 합성어, (21)은 ‘碧’의 합성어가 나타난 예이다. 이들은 관습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 (20)의 예들에서 ‘청’을 삭제하고 ‘하늘’로 대체해도 의미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22)은 ‘푸르다/퍼렇다’가 나타났는데 단순한 색을 나타내고 있다. (22ㄴ)은 ‘푸른 소’가 ‘깊은 소’를 뜻하므로 실제 자연의 경험 지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 4.2.4 가치 판단과 [푸르다]의 상관성

[푸르다]는 봄에 해당하는 색으로 청정한 생명과 양기를 상징한다고 한다 (나지영, 2002:6). 서양에서는 우울을 상징하며 우리말 관용구에서도 ‘새파랗게 질리다, 얼굴이 새파래지다’와 같이 놀람과 공포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나 속담에서는 주로 자연물과 공기하여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가치를 나타낸다. 또, [푸르다]는 한자어 ‘靑’이 다른 어휘와 결합하여 관용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많다. 이때는 특별한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파랗다]와 관련된 연상으로는 ‘냉혹, 상쾌, 청결, 젊음, 침울, 냉정, 공포, 영원, 성실, 추위’ 등이 있다(박옥련, 1998:105). 서구에서 주로 부정적인 연상 의미를 가지는데 ‘파랑새’는 서구와 우리나라가 상반되는 연상 의미를 가지는 것이 특이하다.

[푸르다]는 긍정적인 가치 외에는 뚜렷한 가치 판단과 결부되는 일이 적어 보인다. 중립적인 가치가 많은 것은 자연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색채이기 때문이다. 인위적인 것과 관련된 표현은 긍정 또는 부정의 가치를 나타

57) 그저 그렇게 보이는 물도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다는 뜻으로, 무엇이나 얼른 보아서는 비슷하게 보여도 자세히 따져 보면 꼭 같은 것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8) [북]깊어서 푸르게 보이는 소(沼)에 돌을 던져 봐야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다는 뜻으로, 쓸데없는 행동으로 아무런 이익도 없이 공연한 것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낸다. 특히 부정적인 가치 표현은 속담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이는 속담에서는 정서가 반영된 음성상징적 형태가 잘 나타나지 않는 특성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 4.3 [누르다] 계열 색채 표현 출현 속담

#### 4.3.1 긍정적 가치

##### 1) 곡식

(23) ㄱ. 딸을 주겠거든 류월 달에 벼 누런 집에 주라<sup>59)</sup>/사돈 지내는 것도 칠팔월에 논벼가 검거든 지내지 말고 누렇게든 지내라고 했다<sup>60)</sup>

ㄴ. 윤달 든 해는 노란 곡식이 풍년 든다

어휘 의미	언어 의미	전체 지칭 의미
곡식, 누르다	'누르다' > [잘 익은 벼]	[풍요로움]

벼농사가 중심 산업이었던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가치는 당연한 것이다. '검다'가 여기서는 부정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색으로 쓰였음을 볼 수 있다. 이때 특이한 점은 '노랗다'가 아닌 '누렇다'가 긍정적 가치 표현에 사용된 것인데, 속담에서 기본 형태가 아닌 변이형이 쓰인 예가 매우 적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특수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곡식의 경우 실제 기억색이 '누렇다'의 형태로 자리잡았음을 확인하게 하는 예이다.

##### 2) 짐승의 털

(24) ㄱ. 개 꼬리 삼 년 묵어도[두어도] 황모 되지 않는다<sup>61)</sup>

59) [북]유월에 벼가 누런 집에 시집을 가야 굶지 않고 잘살 수 있다는 말.

60) [북]예전에, 서로 사돈을 맺는 것도 음력 칠팔월에 논벼가 아직 여물지 않았을 때는 하지 말고 누렇게 여물어 가면 하라는 뜻으로, 그해 농사가 되어 가는 것을 보아 가며 혼사를 정하라는 말.

61) 분바탕이 좋지 아니한 것은 어떻게 하여도 그 본질이 좋아지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ㄴ. 썬 개 꼬리 시궁창에 삼 년 묻었다 보아도 썬 개 꼬리다<sup>62)</sup>

어휘 의미	언어 의미	전체 지칭 의미
개 꼬리, 누르다	‘황모’> [족제비의 꼬리털]	[최상품]

이것은 특수한 경험 지식을 반영하는 예이다. ‘황모’의 사전 뜻풀이는 ‘족제비의 꼬리털. 뾰뾰한 세필(細筆)의 붓을 만드는 데 쓴다’이다. ‘개 꼬리’가 대립적·부정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황모’는 고급 재료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는 언어 구성에서 도출할 수 있고, 속담 전체의 지칭적 의미는 ‘황모-고급품:개 꼬리-저급품’이라는 경험적 지식에 바탕을 둔 환유 작용에서 도출된다. (23ㄴ)은 [희다] 부류에서 동일한 지칭적 의미를 가지는 속담이다. ‘황모’는 나타나지 않지만 역시 경험적 지식으로 생략된 ‘황모’의 의미를 복원하여 전체 지칭적 의미 해석에 활용하게 된다.

### 4.3.2 부정적 가치

#### 1) 잎·씩

(25) ㄱ. 떡잎에 황이 들다<sup>63)</sup>

ㄴ. 곡령엔 소나무가 푸르고 계림엔 나뭇잎이 노래진다<sup>64)</sup>

ㄷ. 싹수가 노랗다/씩이 노랗다

어휘 의미	언어 의미	전체 지칭 의미
잎, 노랗다	‘노랗다’> [잎이 노랗게 마르다]	[노약한 상태]

[누르다]가 부정적 가치를 나타낼 때는 대부분 원형의 정상적인 색과 다르게 비정상적으로 [누르다]가 나타날 때이다. ‘씩이 노랗다’에서는 ‘씩’이 정상적인 상태라면 [초록]을 띠어야 하나 [초록]보다 채도가 떨어지는 색을 띠는

이르는 말.

62) =개 꼬리 삼 년 묵어도[두어도] 황모 되지 않는다.

63) [북]①원래 보잘것없는 것이 더욱 나빠짐을 이르는 말. ②기세가 약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사람이 맥을 못 주고 다 늙어 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4) 통일신라 때 최치원이 고려의 부흥과 신라의 쇠망을 예언한 말이라 한다.

경우가 나타난다. 이때의 ‘노랗다’는 실제로는 연두색이나 연갈색, 황토색에 가까운 색이다. 그러므로 건강하지 못하고 곧 쇠약해질 모습을 나타낸다. 앞이나 짝의 기억색과 거리가 먼 상태이다. 여기에 ‘떡잎, 짝’ 등 막 태어난 생명을 뜻하는 어휘가 공기하여 대조를 이루면서 지칭적 의미가 나타난다.

## 2) 개

(26) ㄱ. 얻어먹을 것도 사돈집 노랑 강아지 때문에 못 얻어먹는다<sup>65)</sup>

ㄴ. 삭은 바자 구멍에 노란 개 주둥이 (내밀듯)<sup>66)</sup>

ㄷ. 다 삭은 바자 틈에 누렁개 주둥이 같다<sup>67)</sup>

어휘 의미	연어 의미	전체 지칭 의미
개, 누르다	특별히 없음	[동네의 참견쟁이]

‘개’는 본래 속담에서 부정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어휘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개’가 가진 부정적 의미와 ‘노랗다/누렇다’가 결합하여 하찮은 존재 또는 귀찮은 존재를 표상한다. 현실에서 잡종개가 누런색을 띠는 일이 많다는 사실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검정 개/검은 개’ 역시 [더러움]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개’와 공기하는 색채 표현은 부정적인 가치를 더욱 강조하는 기능을 함을 알 수 있다(장경현, 2007).

## 3) 돈

(27) 비상 사 먹고 죽으려도 노랑전 한 푼 없다<sup>68)</sup>

- 
- 65) 구차하게 딱한 사정을 말하여 겨우 얻어먹게 되었는데 그만 사돈집의 노랑 강아지가 나타나서 주인이 그 개를 쫓아가는 바람에 아쉽게도 못 얻어먹게 되었다는 뜻으로, 자기가 하는 일에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놓는 사람이 있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66) 다 삭은 바자 구멍으로 개가 주둥이를 잘 내밀듯이 말참견을 잘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67) 삭은 대로 삭아서 다치기만 하여도 구멍이 평평 나는 바자 틈에 난데없이 쑥 나온 누렁개의 주둥이와 같다는 뜻으로, 당찮은 일에 끼어들어 주체넘게 말참견을 하는 것을 비꼬는 말.

‘노랑전’은 ‘노랑돈’의 북한어인데 노란빛이 도는 엽전을 뜻하며 2차 의미로 얼마 안 되는 돈을 뜻한다. ‘한 푼 없다’와 공기하며 아주 적은 돈을 의미하고 있다. 이때, ‘노랑전’ 자체만을 독립적으로 보아 ‘노랑’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중립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한상황]+[최소량의 부재]라는 속담의 의미 구조 속에서 부정의 가치를 갖게 된다.

#### 4) 피부

##### (28) 동방(東方) 누룩 뜨듯<sup>68)</sup>

어휘 의미	언어 의미	전체 지칭 의미
누룩	‘누룩’> [누런 것]	[누르께하고 기운 없는 얼굴빛]

동쪽 지방에서 누룩 뜨듯 누렇다는 뜻인데 이미 경험적 지식이 잊혀졌으므로 지칭 의미 이전의 의미 해석이 쉽지 않다. 실제로 색채 표현이 나타나지 않고 지칭적 의미로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 5) 의류

##### (29) 곱다니까 노란 샤쯔 사 달란다<sup>70)</sup>

어휘 의미	언어 의미	전체 지칭 의미
노랑다, 셔츠	‘노랑다’> [화려한 옷]	[분수에 맞지 않는 선물]

(29)는 북한 속담인데 이렇게 옷과 언어 구성을 이루어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적어 정확하게 그 가치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부정적인 의미인지 긍정적인 의미인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데, 북한 사전에

68) [북]독약인 비상을 사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엽전 한 닢이 없다는 뜻으로, 지극히 어려운 생활 처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9) 사람의 얼굴빛이 누르께하고 기운이 없어 보이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0) [북]=곱다니까 운다.

서 ‘곱다니까 운다’의 동의어로 처리하여 ‘그 뉘뉘이가 부족한 사람을 좋게 평가해 주면 우쭐하여 더욱 엉뚱하고 거슬리는 것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뜻풀이를 돌린 것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동의 속담 ‘곱다니까 운다’의 구성을 분석하여 비교해 보았을 때 ‘노란 샤쓰’도 ‘울다’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울다’와 대응하는 부정적인 표현이 ‘노란 샤쓰를 사 달라다’라는 행위 자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노란 샤쓰’가 고급품을 의미하는 환유적 표현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전향(곱다니까)과 후향(노란 샤쓰를 사 달라다)의 대립에 초점을 두어 행위 자체이든 구성 어휘이든 지칭적 의미에서는 부정의 의미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때 ‘노랑다’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지나치게 화려한 색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 4.3.3. 중립적 가치

- (30) 가. 이도 아니 나서 황밤을 먹는다<sup>71)</sup>
- 나. 보리누름까지 세배한다<sup>72)</sup>
- 다. 보리누름에 선늬은이 얼어 죽는다

여기서는 별다른 가치를 표상하지 않고 현실의 경험 지식과 관련된 해석을 요한다. 어휘 의미에서 ‘황밤’이 말린 밤을 뜻하므로 이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말린 밤을 먹는 행위가 매우 어려운 행위를 시도함을 뜻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 (31) 내 노랑 병아리만 내라 한다<sup>73)</sup>
- (32) 안질에 노랑 수건<sup>74)</sup>

---

71) 아직 준비가 안 되고 능력도 없으면서 또는 절차를 넘어서 어려운 일을 하려고 달려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황-밤(黃-):[명]말려서 껍질과 보리를 벗긴 밤. ≒황률(黃栗).

72) 보리가 누름에 익을 무렵 즉 사오월까지도 세배를 한다는 뜻으로, 형식적인 인사 차림이 너무 과함을 이르는 말.

73) 수없이 많은 노랑 병아리 속에서 제 노랑 병아리를 찾아내라고 한다는 뜻으로, 무리하게 억지로 무엇을 해 달라고 청함을 이르는 말.

(32)를 구성하는 두 체언은 인과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 속담의 지칭적 의미는 환유에 의해 형성되며 경험적 지식에 기반을 둔다. 이때 ‘노랑’은 실제로는 ‘누런’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으로, ‘노랑’ 자체가 부정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준다.

#### 4.3.4 가치 판단과 [누르다]의 상관성

[누르다]는 가시도가 높은 색이지만 식욕을 낮추는 색이기도 하다. 또한 일반적인 연상으로는 ‘희망, 광명, 팽창, 명량, 유쾌, 온화, 화려, 청순, 질투, 환희, 대담, 경박, 천박’ 등이 나타난다. (박옥련, 1998:105). 노랑은 화려한 원색이지만 속담에서는 서민 생활과 관련되어 나타나면서 다소 부정적인 가치 평가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노랑은 중국 황제가 입던 옷의 색이었으므로 조선 태조 때 금색(禁色)으로 지정하였다(구미례, 1992). 이런 사정으로 서민 생활과는 다소 유리된 색이라는 인식이 심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조영수(2003)에서는 ‘노랑다’의 의미로 ‘1) 질투하는, 시샘하는 2) 나쁜 3) 비겁한, 겁 많은 4) 경고, 5) 중요한 6) 신출내기 7) 인색한 8) 색깔 자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의미는 주로 서양 관용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우리 속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조영수(2003:156 각주46)에서는, 북한에서는 노란색이 자본주의를 표현하는 색이라고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엽전이 한국인을 나타내고 엽전이 노란색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했지만 노란색이 선정성이나 화려함을 나타낸다는 의식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연상 의미는 대부분 긍정적인 것인 데 반해 속담에서는 부정적 가치가 다른 색채보다 많이 나타난다. 연상 의미는 추상적이지만 속담은 식물, 얼굴, 개 등 일상생활에 결부된 것이 많기 때문에 서로의 영역이 겹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속담에 나타나는 노랑은 순수한 노랑보다는 누런 기가 섞여 있는 갈색, 초록색일 경우가 많다. 즉 기억색과 거리가 있으므로 원형에

74) ①눈병이 나면 노란 눈곱이 끼어서 눈곱 닦는 수건이 노랑게 된다는 뜻으로, 가까이 두고 매우 요긴하게 쓰는 물건을 이르는 말. ②눈병과 노랑 수건은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데서, 매우 친밀한 사람을 이르는 말.

서 멀어진 퇴락하고 손상된 이미지를 갖는다. 또 이런 요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속담에서 색채어와 연어를 이루는 단어들 대부분이 농업 관련어나 개와 관련된 것이다. 특히 곡식의 경우에는 누런색이 수확 시기를 알리는 표지가 되므로 이때는 긍정적인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연상 의미의 조사 대상은 아무래도 도시 거주자들이고 그 결과 인공적인 색채나 추상적인 이미지에서 연상된 이미지가 많을 수밖에 없다. 양쪽의 차이는 이러한 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

#### 4.4 기타 색채 표현

오색 외에 속담에 나타나는 색 가운데 단색은 ‘초록’ 등 소수에 불과하다. 그 외에는 복수의 색이 대립되어 나타나거나 복수의 색을 통합하여 이르는 ‘삼색’과 같은 상위어이다.

[초록] 계열은 다른 색채 표현과 달리 속담에서는 특별한 가치 평가를 나타내는 일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초록’이라는 색채어의 특수성에 얼마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초록’ 또는 ‘綠’은 한자어로 다른 계열과 달리 형용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형용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푸르맹맹하다, 싯누렇다’ 등과 같이 음성상징이 기능하지 않고 또 한자어이기에 고유어보다 더 격식적이고 문어적인 위상을 가진다. 게다가 ‘푸르다’가 ‘초록’이 차지하는 영역을 공유하므로 ‘푸르다’에 일정 부분의 의미 기능을 빼앗기기도 한다. 여기에 속담이라는 텍스트 형식의 제약으로 인하여 그 쓰임 자체가 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색채 표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가치 평가 의미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중립적 가치를 나타낸다<sup>75)</sup>.

75) 조영수(2003)에서는 ‘1) 좋은 2) 성숙치 않은, 무경험의 3) 질투심을 느끼는 4) 많이, 매우 5) 환경친화적 6) 색깔 그 자체’를 의미로 제시하였다. 또한 [초록]과 관련된 연상으로는 ‘청순, 안정, 상쾌, 평화, 안전, 중성, 이상, 지성, 소박’ 등 긍정적인 것이 많으나 ‘청록’과 같은 경우에는 ‘이지(異志), 유령, 죄, 질투’ 등 부정적인 것도 나타난다(박옥련, 1998:105)

(33) ㄱ. 초록은 동색/초록은 제 빛이 좋다<sup>76)</sup>/가재는 게 편이요 초록은 한빛이  
라<sup>77)</sup>

ㄴ. 녹수 갈 제 원앙 가듯<sup>78)</sup>/원앙이 녹수(綠水)를 만났다<sup>79)</sup>

(34) 제수 흥정에 삼색실과<sup>80)</sup>

이 경우는 사물의 인접성에 의한 환유적 관용 표현이다. 동양에서 원앙의 이미지는 대부분 녹음이 우거진 강가나 시내, 연못 위를 떠도는 모습이므로 자연스럽게 ‘녹수’가 공기한다. (34)는 ‘삼색’이라 하여 복수의 색을 나타내고 있는데 역시 경험적 지식에 따른 환유라 할 수 있다.

## 5. 무채색 계열 색채 표현과의 비교

### 1) 색채 표현의 축자적 의미

무채색 계열은 ‘검은 고양이 눈 검은 듯/검은 개 굿 구경/흰죽 먹다 사발 깬다’ 등과 같이 별다른 확장 의미 없이 축자적으로 해석하면 의미가 통하는 예가 있고 실질적인 의미 추가가 없는 잉여적인 표현일 경우가 있다. 그러나 유채색 계열에서는 ‘청-’ 합성어를 제외하면 그런 경우가 매우 적다. 즉, 유채색 계열 색채어는 대부분 다른 개체와 구별되는 변별적 표지(marker)로서 체언과 공기한다. 이것은 다음에 제시할 추상화의 정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무채색은 추상화된 개념으로 사용되는 일이 많은 반면 유채색은 실제 사물의 원형 심상과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일이 많으므로 변별성이 더 높은 것이다.

그런데 유채색이라 하더라도 어휘 의미 자체는 속담에서 축소되거나 사라

76) 처지가 같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려야 좋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7) =가재는 게 편.

78) 둘의 관계가 밀접하여 서로 떨어지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녹수2(綠水)[명] 푸른 물.

79) 적합한 배필을 만남을 이르는 말. #녹수2(綠水)[명]푸른 물.

80) 어떤 일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지는 경우가 많다. (8ㄱ)의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나 (24ㄱ)의 ‘개 꼬리 삼 년 묵어도[두어도] 황모 되지 않는다’ 등에서 색채 표현의 어휘 의미는 쉽게 인지되지 않는다. 다만 연어 의미가 환유 기체에 의해 속담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에 맞게 조작되어 가치 평가를 가지는 지칭 의미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유채색 계열에서 축자적 의미가 개입될 가능성이 특별히 높아지는 않는다.

## 2) 추상화의 정도

1)에서 밝혔듯이 유채색 계열에서는 고도로 추상화된 개념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무채색 계열의 경우 ‘시거든 뿔지나 말고 엽거든 검지나 말지/가마가 검기로 밭도 검을까/까마귀가 검어도 살은 희다’ 등과 같이 무채색 계열 색채어가 인성(人性)이나 선악·미추(美醜)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유채색 계열은 이 정도로 상징화된 예가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 현실의 사물·사실과 강한 유연성을 갖고 있어 의미 확장 과정을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의미 형성의 초기 단계에서 유효하고 속담 전체의 지칭 의미 단계에서는 현실과의 유연성이 큰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속담 속 색채 표현이 나타내는 의미는 색채어 자체의 연상 의미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구체적인 맥락이 없이 색채어만을 가지고 조사한 연상 의미는 추상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속담에서는 일상생활이나 자연 현상과 결부지어 생산된 연어 구성이 실질적인 의미 형성의 출발점을 이루므로 추상화의 정도는 연상 의미보다 낮다. 그렇다고 추상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속담 전체가 나타내는 지칭적 의미는 연어 구성이 추상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 품질의 상하 표현

무채색인 [검다]에도 ‘검정 소’가 상등품의 표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유채색의 경우에는 이렇게 품질의 등급을 표현하는 일이 다양한 편이다. 대개는 상등급을 나타내는데, 이는 원색의 경우 채도가 높아 빛깔이 선명할

수록 품질이 좋은 자연물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속담에서의 유채색은 채도가 가장 높은 기억색으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때 공기하는 식물·식품류의 명사는 상등품의 특성을 부여받는다. 반면 [누르다]는 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하등급을 의미한다. [누르다]는 자연보다는 인위적인 염료에서 채도가 높은 기억색을 더 접할 수 있으므로 자연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채도가 떨어지는 부정적인 속성과 결부되기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채색 계열은 인간의 추상적인 내면이나 외면의 긍정/부정 판단 쪽이 더 많이 나타나나 유채색 계열은 사물에 관련된 가치 관정이 많이 나타난다. 무채색보다는 유채색이 자연의 색에 더 가깝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겠다. 만일 유채색이 자연물이 아닌 인간의 생산물과 공기한다면 대개는 염료나 재료의 품질과 관련된 가치 관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 6. 지칭 의미와 색채 표현의 관계

속담의 지칭 의미는 속담 구성 어휘들이 언어 구성을 이루며 생산되는 의미와 통사 구조에서 파생되는 의미에 언중이 가지는 공유 지식이 융합되어 형성된다. 따라서 색채어의 고유 의미는 속담에서 독립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경우 외에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 속담이라는 텍스트의 특성이 어휘 특성보다 강하여 텍스트의 의미인 지칭 의미에 따라 색채 표현의 의미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기존의 연구에서 속담의 의미를 통해 색채어의 의미를 제시한 것은 불완전한 분석이 될 위험이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자료로 하여 국어사전에서 색채어의 뜻풀이를 작성하는 것도 올바른 작업이 아닐 것이다. 색채어의 의미를 분석할 때는 단독 색채어의 어휘 의미, 관용구 등의 언어 의미, 속담 등의 지칭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앞의 논의에서도 언급했듯이 속담 속 색채 표현의 가치 관정은 현대 언중에게는 직관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비렁뱅이한테도 붉은 띠 빌린다’나 ‘얼어먹을 것도 사돈집 노랑 강아지 때문에 못 얼어먹는다’ 등은 전체의 의미 대립 구조를 보고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구조만으로 판단하기 어

려운 ‘붉고 쓴 장’이나 ‘빨간 상놈 푸른 양반’ 같은 속담은 사전의 해설을 보아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속담의 의미 해석에 있어서의 난점은 당연한 듯 보이는 색채어 의미의 직관성을 막고 새로운 의미 해석을 하도록 만든다. 이런 경우 속담의 지칭 의미가 의미를 파악하는 유일한 지침이 되므로 개별 어휘 의미는 지칭 의미에 의해 ‘전체>부분’의 순서로 새로이 해석된다. 이것이 정상적인 과정인가는 별도로 숙고해야 할 문제이지만, 속담은 일종의 화석 텍스트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인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색채 표현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투명한 어휘인 것 같지만 보편적인 맥락을 벗어나서 특정 맥락과 결부되면 의미가 불투명해지는 특성이 있다. 색채어의 어휘 의미만으로는 그 맥락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관용어로 보편화되었다면 ‘큰 사람이 되어라’의 ‘크다’가 물리적인 크기가 아닌 ‘인격이 높거나 도량이 넓다’의 의미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빨간 상놈’에서 ‘빨간’의 의미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속담과 관용구의 경계점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속담에 나타나는 색은 거의 흑, 백, 붉다, 푸르다, 누르다의 다섯 가지 색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 인간이 자연색을 인식하는 보편적인 기계와 이를 가치 판정과 연결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푸르스름하다’와 같은 음성상징적 변이형을 거의 쓰지 않는 것은 속담과 같은 화석 텍스트에서 원형(prototype)이 중심이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가운데 ‘누르다’만 이질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자연에 가까운 채도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심리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닐까 한다. 즉 ‘누르다’의 채도를 지나치게 높지 않게 잡아 연두색이나 황토색에 가까운 색을 이 범주에 넣어 속담에 이용한 것이다.

## 7. 결론

지금까지 속담을 구성하는 유채색 계열 색채 표현의 의미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속담 속 색채어는 고유의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속담 전체의 지칭

의미에 의해 가치가 부여되어 맥락에 맞는 의미 기능을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현실의 경험적 지식이 원형으로서 작용하여 색채어 역시 기억색으로서 이상적인 가치 판단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가치 판단은 은유·환유 작용을 거쳐 속담의 담화 층위의 의미를 형성한다. 따라서 속담 속 색채어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1) 어휘 의미 2) 연어 의미 3) 지칭적 의미의 세 단계를 살펴야 하고 속담 전체의 지칭적 의미가 나타내는 가치 평가를 주된 의미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속담의 원형으로 삼은 색채를 우리나라 언중이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색채어의 의미를 속담을 통해 고찰해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속담 자료의 태생적 제약 때문에 한계가 있었음이 아쉽다. 앞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관용 표현까지 대상을 넓혀 논의하면 좀더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성영(2001), “의미·화용론적 관점에 의한 프랑스 어 속담과 우리말 속담 비교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34집, 한국프랑스학회, 1~20.
- 권영성(2003), “「綠」에 의한 색채 표현-「靑」과의 비교”, 일어일문학연구 vol.47, NO.1, 한국일어일문학회.
- 구미례(1992), 한국의 상징 세계, 교보문고.
- 김광혜(1993), 국어어휘론개설, 집문당.
- 김영철(2003), “우리말 관용어의 상징 의미 연구-색채어를 대상으로”, <국어문학> 38, 국어문학회, 55-72.
- 김육동(2002),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 김인화(1987), “현대 한국어의 색채어 연구”, 이화여자대학 박사학위 논문.
- 김중도(2005), 인지문법적 관점에서 본 환유의 세계, 경진문화사.
- 김진혜(2003), “관용어의 직설의미와 관용의미의 관계 연구”, 한국어 의미학13, 한국어 의미학회.
- 나지영(2002), “한국 색채의 상징성과 일상성”, 조형예술연구6, 상명대학교 조형예술 연구소.
- 문금현(1996),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문은배(2002), 색채의 이해, 도서출판 국제.

- 박경선(2001), “영어와 한국어의 색채어와 신체어에 나타나는 개념적 은유”, 담화와 인지 8-1, 담화인지언어학회, 69-83.
- 박명원(2001), “한국인의 색채 의식”, 성균관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박선희·권영걸(2005), “한국 속담에 나타난 서민의 색채 의식 연구”, 한국색채학회는 문집19권 3호, 한국색채학회, 1-11.
- 박옥련(1998), 색채 이론과 활용, 형설출판사.
- 손세모돌(2000), “국어 색채어 연구”, 한말연구6, 한말연구학회, 133-165.
- 송현주(2003), “색채 형성사의 의미 확장 양상”, 언어과학연구24, 131-148.
- 이기문(1980), 속담사전, 민중서관.
- 이해윤(2005), “기본 색채 형용사의 의미기술- NSM 이론의 틀 안에서”, 독어교육33, 한국독어독문교육학회, 141-160.
- 임지룡(1997),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 임지룡(2006), “감정의 색채 반응 양상”, 담화와 인지12, 담화인지언어학회, 76-98.
- 임혜원(2005), “한국어 [빛]과 [색]의 은유적 확장”, 담화와 인지 12호 3권, 담화인지언어학회, 101-119.
- 임혜원(2006), “국어 사물 개념의 은유적 확장 연구-대화 말뭉치를 바탕으로”, 한국어 의미학19, 한국어의미학회, 125-155.
- 조영수(2002), “한국어, 독일어, 영어에 나타난 색깔의 상징의미(1)-하양과 검정”, 독일문학84, 한국독어독문학회, 513-537.
- 조영수(2003), “한국어, 독일어, 영어에 나타난 색깔의 상징의미(2)-빨강, 노랑, 초록”, 독어학8, 한국독어학회.
- 주경희(2006), “속담 비유성의 의미·화용론적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5권, 국어교육학회, 421 ~445.
- 지인영(1999), “한국 속담과 영어 속담에 나타난 생활문화 비교”, 교양교육논문집4, 한국체육대학교, 111-123.
- 채수명(2002), 색채심리마케팅, 도서출판 국제.
- 홍성진(2000), “속담의 의미·화용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황경자·백경선(2002), “속담 의미와 은유”, 프랑스학 연구 24권, 프랑스학회, 377~404.
- Anscombe, L.C.(1995), “Topique or not topique: Formes topiques intrinsèques et formes topiques extrinsèques”, Journal of pragmatics 24, pp.115-141.
- Clark, H.H. & Eve V. Clark(1977), *Psychology and Language: An Introduction to Psycholinguistics*, New York: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Cruse, D.A.(1986), *Lexical Seman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use, D.A.(2000), *Meaning in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임지룡·김동환 역, 언어의 의미, 태학사.)
- Kleiber(1984), Sur la définition du proverbe, Nominales, Essais de sémantique référentielle, Armand colin, 207~224.

- Lakoff, George & Mark Johnson(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노양진·나익주 역, 삶으로서의 은유, 박이정, 1995.)
- Lyons, John(1995), *Linguistic semantics:An introdu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orrick, Neal R.(1981), *Semiotic principles in semantic theory*, Amsterdam:John Benjamins B.V.
- Sweetser, Eve(1990),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박정운 외 옮김, 어원론에서 화용론까지, 박이정.)
- Wierzbicka, Anna(1996), *Semantics, Primes and Universa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서울시 송파구 잠실6동  
장미아파트 29동 106호  
138-918  
전화 번호: 019-299-8731  
전자 우편: gunkel@empal.com

원고 접수일 : 2007년 11월 10일  
게재 확정일 : 2008년 4월 17일